

## 경기도민 삶의 만족 영향 요인 분석

### A Study on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Gyeonggi Residents

김희연\*·유병선\*\*

Kim, Hee-Yeon·Yoo, Byung-Sun

#### ■ 목 차 ■

- I. 서론
- II. 삶의 만족에 대한 이론적 검토
- III. 연구 방법
- IV. 분석 결과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만족에 있어 사회보장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에 위해 2021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삶의 질 만족의 영향요인을 단계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개인특성과 가구특성, 그리고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어려움으로 구분한 후, 요인을 순서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3.34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사회복지영역의 어려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에서 투입한 독립변수 모두 삶의 질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삶의 만족, 삶의 질,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어려움, 위계적 회귀분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difficulties in the social security sector that affect the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of Gyeonggi-do

\* 제1저자.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 교신저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논문 접수일: 2022. 11. 11. 심사기간: 2022. 11. 11. ~ 2022. 12. 13. 게재확정일: 2022. 12. 13.

resident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2021 Gyeonggi-do Community Security Needs Survey data was analyzed.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step by step, independent variables were divided in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difficulties in the social welfare area, and then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 which the factors were input in order.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yeonggi-do residents'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life was 3.34, which was found to be normal. Second, in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at analyzed the relative influence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it was found that difficulties in the social security area had the greatest impact. Third, it was found that all independent variables input in this study had an effect on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life. Based on these results, policy recommendations were presented.

□ Keywords: Life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Difficulties in Social Securit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 I. 서론

2020년 1월 창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행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행복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모자람 없이 흡족한 상태인 만족감을 생활에서 느껴 흐뭇한 상태를 의미한다(다음한국어사전, <https://dic.daum.net>). 삶의 만족이 높아지면 행복하다는 것이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삶의 만족도를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질문하여 정량화해 행복지수로 표현한 세계 행복보고서를 2012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2022년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46개국 중 59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행복 수준은 높지 않은데 세계 최고수준의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이 이를 뒷받침하며, 낮은 사회보장수준 때문이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한다. 사회보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만족이 낮고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족이나 행복은 공통적으로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개인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 앞서 언급한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의 세계행복보고서부터 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이후 BLI)’와 How’s Life?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통계청이 2014년 이후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는 ‘국민 삶의 질 보고서’가 있다. 삶의 질은 객관적인 조건 즉, 경제적인 생활수준, 평균수명, 교육기회와 교육여건, 범죄율, 문화 시설, 의료시설 등과 같은 사회지표에 대해 개인의 인지를 통해 주관적으로 판단(만족 정도)하는 방식으로 측정한다. 삶의 만족이 현재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와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질과 삶의 만족은 측정의 내용과 구성이 유사하여 본 연구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한편, 삶의 만족은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따라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이 차이가 난다는 선행 연구결과(홍성호 외, 2021; 이병호외, 2018; 김이선 외, 2018)에 따라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거시적 지표들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지역차원에서의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시도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수준,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에 대한 차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상당수는 주민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삶의 질 수준을 진단하고 어떤 요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혁신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도 그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삶의 질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부족했고, 지역주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궁금해 하기보다는 삶의 만족 순위를 나열하는데 더 집중했다.

본 연구는 지역단위에서의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경기도 지역을 사례로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사회보장 영역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사회보장은 삶의 만족과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례지역을 경기도로 정한 것은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도시와 농촌지역이 공존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삶의 만족에 대한 정의와 측정지표, 영향 요인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하고, 사회보장 영역에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분석과 그 결과를 논의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 II. 삶의 만족에 대한 이론적 검토

### 1. 삶의 만족의 다차원적 정의

#### 1) 삶의 질과 삶의 만족

삶의 질은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에 따라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고, 시대와 적용되는 분야나 공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기에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흔히, 삶의 질은 안녕(well-being), 복지(welfare), 심리적·주관적 복지(psychological·subjective well-being),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행복(happiness) 등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송건섭, 2007). 이들 유사개념 내지 동의어를 보면 삶의 질의 주관적 측면에 더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많은 학자들도 주관적 측면을 강조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Myers(1987)는 “주민들이 그들의 거주지에서 경험하는 공통적인 특성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정의하고 있고, 임희섭(1996)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적 평가”, 송건섭(2007)은 “한 공동사회의 주민들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공통적인 단어를 추출해낼 수 있는데, 주관적인 평가, 만족감, 행복감, 거주 장소, 물리적 상태 등이다. 그래서 권현정 외(2011:304)는 “삶의 질이란 개인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삶의 질은 삶 만족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며, 삶의 만족은 주관적인 만족 정도와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삶의 질과 삶의 만족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 2) 삶의 만족과 주관적 행복, 객관적인 삶의 질

만족이나 행복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위키백과사전(<https://ko.wikipedia.org/wiki/>)에 따르면, 만족은 욕구가 충족되었다는 상태나 느낌을 뜻하는 것으로,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받아들인 상태를 말하며 자족이라고도 불린다. 행복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말한다. 두 용어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만족은 스스로의 상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행복보다 더 절제하는 형태이다.

삶의 만족은 지금 시점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웰빙의 인지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객관적인 삶의 요소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삶의 질은 다차원적이고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구교준 외, 2020).

송건섭(2007)은 삶의 질을 다음 세 가지 접근에 따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선, 객관적인 접근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상태,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과 같이 한 사회 또는 국가 내에서의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객관적 조건 또는 객관적 통계치를 통해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질병, 교육, 주택과 같은 지표는 정의와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한 사회의 주요 단면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공공정책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국가 간 비교평가의 도구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구교준 외, 2020). 두 번째, 주관적인 접근은 개인 삶이 개인의 가치기준이나 기대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석환(2021)은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만족감 또는 안녕감으로 주관적 접근을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객관적 접근과 주관적 접근을 종합하는 입장이다.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조건을 개인의 인지를 통한 주관적인 평가로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객관적 삶의 질 측정은 물리적 조건이 주관적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인 삶의 만족과 객관적인 삶의 질을 동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삶의 만족 측정

삶의 만족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OECD에서 2011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이후 BLI)’이다. 웰빙지수라고도 표현하는데 단순히 경제적인 발전 측면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어떠한지 11개 분야 24개 지표를 통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11개 분야는 소득, 고용, 교육, 건강, 공동체의식, 시민참여, 환경, 일과생활의 균형, 삶의 만족도, 주거, 안전지수 등이며, 삶의 만족을 0에서 10까지의 척도로 평가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 한국은 5.9로 OECD 평균인 6.5보다 낮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과제 관리 방안으로 국민만족도를 제시하고 정책성과 목표로 BLI 개선을 설정하기도 하였다(정해식 외, 2019).

삶의 만족도를 정량화하여 행복도를 측정한 자료도 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2012년부터 행복과 웰빙에 관한 UN 고위급 회담을 바탕으로 OECD의 지침과 유엔 인권지수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별 행복지수(Life evaluation score)를 10점 만점으로 환산·계산하여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변미리 외, 2017). 그동안의 발전을 경제발전, 국민총생산의 증가로만 보아왔던 것에서 벗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이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삶의 만족에 대한 주류 정책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최근 ‘2022 세계 행복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 59위를 차지했다.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GDP), 기대수명, 사회적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등 6가지 항목의 3년 치 자료를 분석해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5.935점으로 1위인 핀란드(7.821점)와 비교하면 1.886점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는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GDP)과 기대수명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항목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OECD는 How's Life? 웰빙지표를 2011년부터 격년으로 발간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2020년에 3년 만에 발간하였다. How's life?는 소득과 부, 주거, 일과 일자리의 질, 건강, 지식과 역량,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 안전,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연계, 시민참여 등 OECD BLI지표와 거의 유사한 11개 영역 외에 경제 자본, 자연 자본, 인적 자본, 사회 자본 등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미래와 관련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OECD, 2020).

국내에서도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2014년부터 매

년 발표하고 있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보고서’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달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수준이 높지 않고, 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 높은 자살률 등 사회전반의 활력이 약화되면서 상대적 빈곤, 노사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기존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정책적 관심 전환이 필요하다(통계청, 2022)는 인식이 계기가 되었다. 통계청은 삶의 질이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11개 영역(분야) 71개 지표로 삶의 질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통계청, 2022). 11개 분야는 가족공동체, 건강, 교육,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환경, 안전,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이다(통계청, 2022).

삶의 질 정의에서도 보았듯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따라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이 차이가 나타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거시적 지표들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지역차원에서의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시도가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2015년 서울형 행복지표를 발표하고 매년 서울시민 행복지수를 발표하였다. ‘서울형 행복지표’는 OECD ‘삶의 질 지표’의 틀을 유지하면서 서울시민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체계로 경제, 주거, 일자리, 인적자원, 환경, 커뮤니티, 시민참여, 건강, 안전, 문화여가, 생활만족도 등 총 11개 영역, 2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변미리, 2017).

마을단위의 자원, 지역공동체의 역량, 주민 삶의 질 현황을 담은 지역공동체행복지표가 개발되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2015년에 상기 3개 영역 88개 세부지표를 개발하였다(박승규 외, 2015). 조사결과는 다음 년도 자치단체 특별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지역공동체별로 A, B, C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시도 및 시군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최근에는 조사한 결과를 찾지 못하였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역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지역주민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생활 인프라, 주거, 교육, 문화여가, 경제, 사회, 의료, 복지, 환경, 안전, 시민의식, 삶의 만족 등 12개 부문의 객관적인 정량지표 30개와 주관적인 정성지표 16개 등 모두 46개 지표를 구성하였다.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4년 7월 조사가 이뤄졌다. 이 같은 조사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삶의 만족에서 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변미리 외 2017).

지역의 문제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시도 및 시군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매 4년마다 주민의 13개 사회보장 영역별 욕구<sup>1)</sup>를 조사하고 있다. 영역별 욕구 외에 정책시급성 및 노력체감도, 생활여건

및 지역불균형, 코로나19와 생활변화,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13개 사회보장 영역별 욕구는 각각의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과 이용에 대한 어려움 정도를 통해 측정하고 있고, 삶의 만족도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현재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그리고 ‘현재의 삶의 질’ 등 3개 질문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 3. 삶의 만족 영향 요인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이 생산되면서 이를 적용한 삶의 만족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손용비·강현철(2019)은 삶의 질의 중요한 한 부분인 전반적인 삶의 만족과 긍정적인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 삶의 질을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좋은 상태가 계속되면 개인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서울형 행복지표와 OECD BLI 지표를 참고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경기연구원의 도민의 삶의 질 조사 자료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 자가 주택에 거주하며 오랜 기간 동종 경력(경제활동)과 안정된 종사상 지위를 가지면서 직주근접 성향의 물리적 환경을 가질수록 행복과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고, 건강상태에 만족할수록, 편의시설 접근이 용이하고 공공시설이 많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상태, 경제활동, 주거 안정 등을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고혜진·정해식(2022)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 하락하는 원인을 찾기 위해 중고령자의 삶의 경험(사건)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령화연구패널의 1차부터 7차까지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와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 주거안정과 원활한 사회적 관계는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석재은·장은진(2016)은 신체건강수준과 정신건강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김미혜·문정화·성기옥(2014)은 경제적 요인이 모든 연령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며, 생애주기별로 청년기는 ‘희망감’, 중년기는 ‘경제적 만족도’, 노년기는 ‘주관적 건강’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양재진·이호연·이정주(2016)는 한국 노년층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노년층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앞의 연구와 같이 소득과 건강상태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만 한정되어 있고, 사회적 관계와 문화

1) 13개 사회보장 영역은 아동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문화·여가, 고용, 기초생활유지, 신체건강, 정신건강, 교육, 주거, 법률 및 권익보장, 보호·안전,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이다.

활동 등과 같은 요인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하였다.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요소 외에 사회적 안전이나 문화여가활동 등과 같은 지역적 특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김이선·손명아(2018)는 삶의 질이 개인적 요인과 개인이 속한 지역의 환경적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에 근거한다는 이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 응집성, 사회 포용성, 사회 역능성과 같은 사회의 질 요인과 지역별 인구 특성이 거주민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기도 지역을 사례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 안전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공공기관, 의료시설, 복지 근린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민의 지역사회 소속감이나 사회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사회의 역능성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선·손명아, 2018). 이서연·조원지(2022)는 노인들의 코로나 19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 인식에 따라 가족관계와 지역사회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지역사회 만족이나 가족관계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불안요소가 발생할 경우 가족원 간 상호작용 빈도를 높이고, 가족생활교육 등의 개입이 이뤄지면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김병용(2022)은 문화예술 여가활동에 대한 기대가 사회적 유대감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도를 설문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문화예술 여가활동에 대한 기대는 문화 활동 참여를 촉진시켜 사회적 유대감과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이나 문화여가와 같은 지역사회의 특성 외에 지역수준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만족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홍성효 외(2021)는 충남지역을 사례로 하여 생활SOC 서비스의 수준과 삶의 질 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생활SOC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도시지역의 삶의 만족도가 농촌지역에 비해 높고, 연령별로는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과 면(面) 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과 고령자의 삶의 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SOC서비스 확대보다는 지역의 다른 조건, 예를 들면 사회적 관계 등이 삶의 질 만족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송건섭(2007)은 광역시, 자치시, 자치군 등 지역수준별로 주민의 삶의 질 만족에 차이가 있고 영향요인도 다르게 나타나 지역 간 차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지역 단위의 삶의 질 만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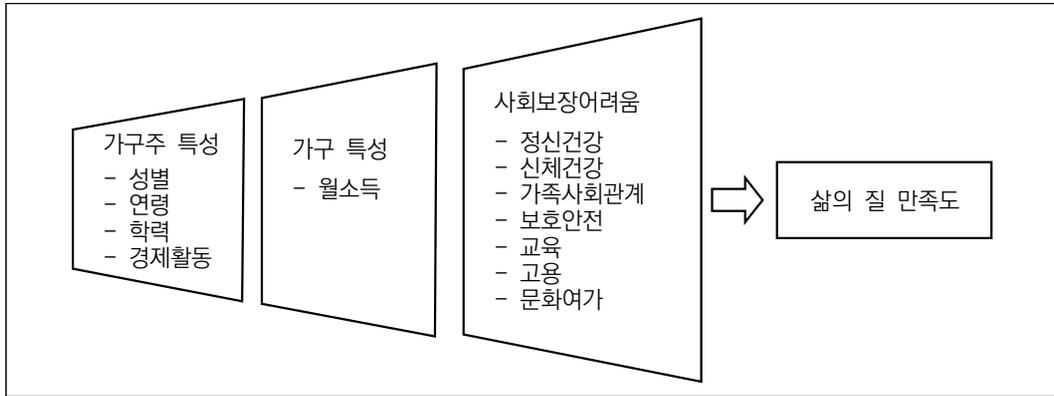
위의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및 가구 특성(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경제활동, 건강, 주거상태 등)과 지역사회의 특성(편의시설 접근성, 지역사회 안전, 문화여가활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도 경기도민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모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모형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이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가설 1) 가구주의 개인 특성은 삶의 질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2) 가구의 특성은 삶의 질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3) 지역의 사회보장어려움 정도는 삶의 질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21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이다.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는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sup>2)</sup> 수립을 위한 조사이다.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sup>3)</sup>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지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35조 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지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35조 제7항 :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

는 법률에 근거한 조사로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 및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 지역사회보장 실태진단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실증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로 매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이다.

2021년 경기도지역사회보장조사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가구 수 기준 1%에 해당되는 50,610가구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1년 8월 20일부터 2021년 11월 26일까지이다. 수집된 자료는 오류검증과 가중치 작업을 거쳤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5,714,849가구의 가중치가 적용되었으며, 본 연구는 이중 가구원이 응답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가구주가 응답한 데이터 3,494,937데이터를 최종 분석하였다.

### 3. 변수의 정의 및 구성

####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이며, 삶의 만족은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 상기 조사 자료에서 삶의 만족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현재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현재의 삶의 질’ 등의 3개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현재의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므로 주택과 지역사회 생활환경은 빼고 삶의 질 항목만을 선택하였다. 본 조사에서 삶의 질의 척도는 5점 척도(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5점)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만족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경기도민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 자료는 13개 영역의 사회보장에 대한 어려움 정도,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서비스 인지여부·이용경험·향후이용의향에 대해 측정하고 있다. 이 중에 각 영역에 대한 어려움 경험 정도를 5점 척도(전혀 경험하지 않음=1 ~ 매우 자주 경험함=5)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를 설정하였다.

---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3개 영역 중 앞서 제시한 삶의 만족지표와 영향요인 분석 등에서 활용한 지표 등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건강(정신건강(5문항) 및 신체건강(2문항)), 가족 및 사회적 관계(2문항), 보호·안전(2문항), 교육(4문항), 고용(9문항), 문화·여가(2문항) 등 6개 영역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개인의 성별(더미변수: 남=0, 여=1), 가구주의 연령(연속변수), 가구주의 학력(연속변수로 변환. 전문대졸=14년, 대졸이상=16년, 고졸=12년, 중졸=9년, 초졸=6년, 무학=0년), 가구주 경제상태(더미변수: 상용근로자=0, 비상용근로자=1), 가구의 월 소득(연속변수)를 투입하였다.

상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본 연구의 변수

변수	변수명	변수 정의	
독립 변수	가구주 특성	성별	더미변수: 남=0, 여=1
		연령	연속변수
		학력	연속변수로 변환. 전문대졸=14년, 대졸이상=16년, 고졸=12년, 중졸=9년, 초졸=6년, 무학=0년
		경제상태	더미변수: 상용근로자=0, 비상용근로자=1
	가구 특성	가구의 소득	연속변수
	사회보장영역 어려움	정신건강 어려움	5점척도. (전혀 경험하지 않음=1 ~ 매우 자주 경험함=5)
		신체건강 어려움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어려움	
		보호안전유지어려움	
		교육 어려움	
고용 어려움			
문화여가 어려움			
종속 변수	삶의 질 만족	현재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	5점 척도(매우 불만족=1점, 매우 만족=5점)

#### 4.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전문적인 통계프로그램(SPSS 22 버전)을 이용하였다. 먼저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과 어려움 정도, 삶의 질 만족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분석방법은 기술통

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이다. 그리고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위계적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단계별로 파악할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우수명, 2018). 이를 통하여 경기도민의 가구주 개인 및 가구 특성 그리고 사회보장영역의 어려움 정도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차례로 추가됨에 따라, 삶의 질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 IV. 분석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과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가구주 성별은 여자가 30.5%, 남자가 69.5%로 나타났다. 연령은 50대가 31.3%로 가장 많이 표집된 가운데, 60대 27.3%, 40대 16.2%, 20~30대 15.2%, 70대 이상 10.0%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4.49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이 60.37%로 가장 높고 대학교 이상 23.0%, 고등학교 졸업 9.5%, 중학교 5.9%, 초등학교졸업이하 0.9%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는 상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외로 구분하였을 때, 상용근로자 48.4%, 상용근로자외 51.6%로 나타났다. 가구월소득은 평균값이 384.32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자	2,429,044(69.5)
	여자	1,064,373(30.5)
연령	20~30대	531,161(15.2)
	40대	565,624(16.2)
	50대	1,095,240(31.3)
	60대	953,875(27.3)
	70대 이상	349,028(10.0)
		평균: 54.49세

구분		빈도(%)
학력	초졸이하	23,593(0.9)
	중학교	153,899(5.9)
	고등학교	248,665(9.5)
	전문대학	1,594,809(60.7)
	대학교이상	604,446(23.0)
경제활동	상용근로자	1,692,142(48.4)
	상용근로자외	1,82,795(51.6)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607,145(17.4)
	200~299만원	570,091(16.3)
	300~399만원	6523.983(18.7)
	400~499만원	580,934(16.6)
	500~599만원	489,397(14.0)
	600이상	594,387(17.0)
		평균 : 384.32만원

각 항목별 합계는 결측치를 제외하여 상이함

## 2. 주요변수의 수준

주요변수들의 수준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가구의 월 소득을 살펴보면, 384,3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의 응답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전체 데이터와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인 가구 기준인 4,562,000원(본 조사대상의 평균 가구원수 2.3명 기준)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가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나, 사회보장영역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로 장애인가구와 기초생활수급가구를 의도적으로 할당하여 표집 하였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어려움 정도의 각 변수를 살펴보면, 교육어려움의 평균값이 4.3910으로 어려움 정도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점 이상의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어려움정도는 1.6539, 신체건강어려움정도는 2.1098, 가족 및 사회적관계의 어려움 정도는 2.2401, 보호안정유지어려움은 1.9358, 문화여가 어려움은 2.31150으로 평균이하의 수준의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유지의 어려움은 2.0486로 나타났다.

삶의 질 만족 정도는 3.34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2021년에 측정된 다른 연구 중,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측정된 조사에서 6.3점을 보인 결과와 비교하면(한국행정연구원, 2022) 본 조사의 척도가 5점 임을 감안하면 비슷한 정도의 삶의 만족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표 3〉 주요 변수의 평균값

구분		평균(표준편차)
가구특성	월소득	384.32(240.281.)
어려움 정도	정신건강어려움	1.6539(0.60)
	신체건강어려움	2.1108(0.84)
	가족 및 사회적관계 어려움	2.2401(0.91)
	보호안전유지 어려움	1.9358(0.76)
	교육 어려움	4.3910(1.64)
	고용 어려움	2.0486(2.87)
	문화여가 어려움	2.3115(0.86)

### 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모두 +.8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우수명, 2018).

삶의 질 만족도는 모든 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가구주성별( $r=-.078$ ), 가구주연령( $r=-.037$ ), 가구주 학력( $r=.091$ ), 가구주경제상태( $r=-.088$ )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가구 월소득( $r=.235$ )이다. 또한, 생활유지의 사회복지영역의 어려움 정도는 정신건강어려움( $r=-.109$ ), 신체건강어려움( $r=-.140$ ), 가족및사회관계유지어려움( $r=-.130$ ), 보호안전어려움( $r=-.081$ ), 교육어려움( $r=-.170$ ), 고용어려움( $r=-.172$ ), 문화여가어려움( $r=-.084$ )과 삶의 질 만족도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주요변수들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가구구성별	1												
2) 가구주연령	.110**	1											
3) 가구주학력	-.238**	-.567**	1										
4) 가구주경제활동 상태	.192**	.496**	-.386**	1									
5) 가구월소득	-.316**	-.259**	.421**	-.357**	1								
6) 정신건강어려움	.038**	.076**	-.053**	-.020**	-.072**	1							
7) 신체건강어려움	.060**	.233**	-.173**	.123**	-.123**	.502**	1						
8) 가족사회관계 어려움	.002**	.036*	.027**	-.004**	-.001*	.509**	.564**	1					
9) 보호안전어려움	-.015**	.029**	.042**	-.030**	.003**	.526**	.511**	.703**	1				
10) 교육어려움	.069**	-.007**	.049**	.022**	-.039**	.510**	.553**	.579**	.574**	1			
11) 고용어려움	-.010**	.002**	.063**	.016**	-.063**	.466**	.426**	.490**	.490**	.562**	1		
12) 문화여가 어려움	-.002**	-.001*	.059**	-.014**	.026**	.357**	.449**	.489**	.468**	.469**	.452**	1	
3) 삶의질 만족도	-.076**	-.037**	.091**	-.088**	.235**	-.109**	-.140**	-.130**	-.081**	-.170**	-.172**	-.084**	1

\*P&lt;.01 \*\*P&lt;.001

#### 4.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가구의 개인특성, 가구특성, 사회보장영역유지의 어려움(6개 영역)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단계별로 투입한 세모형 모두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p<.001 수준),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 1〉에서는 개인특성인 가구구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주 경제상태를 독립변수로 먼저 투입하였다. 투입결과, 가구주 개인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 가구의 개인 특성은 삶의 질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의미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모형 2〉에서는 가구의 특성으로 가구의 월소득 변수가 추가되었으며, 연구가설 2) 가구의 특성은 삶의 질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모형 3〉에서는 사회보장영역 중 건강(정신건강(5문항) 및 신체건강),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교육, 고용, 문화·여가, 보호·안전, 이상 6개 영역에서의 어

려움 정도 변수가 추가되었다. 투입결과 연구가설 3) 지역의 사회보장어려움 정도는 삶의 질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각 변수의 공차한계는 .3이상, VIF 값은 3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우수명, 2018)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식 단계마다의 상대적 영향력 평가를 보는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을 먼저 살펴보면, 가구주 개인특성을 투입한 1단계 <모형 1>의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Adj.  $R^2$ )은 3.7% 수준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기관특성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의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Adj.  $R^2$ )은 4.4%로, <모형 1>에 비해 0.6%가 증가했는데, 이러한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로 어려움 정도를 투입한 <모형 3>의 삶의 질 만족도에 설명력(Adj.  $R^2$ )은 8.4%로 <모형 2>에 비해 4.1%가 증가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가구주 개인 특성과 가구 특성에 비해 사회보장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 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1>에서는 개인특성 중 성별( $\beta = -.060$ ,  $p < .001$ )이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가구주보다 남성가구주가 삶의 질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혜연(2020)의 주장은 매우 의미 있는 해석을 하고 있다. 여성의 지위 향상이 삶의 만족을 높이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여성의 권리와 기회 확대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여성의 권리가 크게 상승했다고 해도 행복의 상대적인 속성, 즉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자신의 행복을 평가하는 속성에 근거한다면 행복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김혜연, 2020:52). 가구주 연령( $\beta = .035$ ,  $p < .001$ )은 연령이 많을수록 삶의 질 만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선진국들의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청년기에 높았던 삶의 질 수준이 중·장년기에 최저점을 보이다가 퇴직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U-자 형태를 보이는 것(김혜연, 2020:53)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청년기의 입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력의 영향으로 삶의 만족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주 교육수준( $\beta = .143$ ,  $p < .001$ )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김혜연, 2020; 이병호 외, 2018). 가구주의 고용상태( $\beta = -.054$ ,  $p < .001$ )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비사용근로자에 비해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가구의 월 소득을 연속변수로 투입한 결과, 가구 월소득( $\beta = .081$ ,  $p < .001$ )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삶의 질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요인이 모든 연령대 사람들의 삶의 질 만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임을 확인한 결과이다.

〈모형 3〉에서는 건강(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가족·사회적 관계, 교육, 고용, 문화·여가, 보호·안전, 6개 사회보장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가 삶의 질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유지가 쉬울수록, 신체건강 유지가 쉬울수록, 가족 및 사회관계 유지가 쉬울수록, 학업유지와 평생교육이 쉬울수록, 고용유지가 쉬울수록, 문화여가가 쉬울수록 삶의 질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어려움이 클수록 삶의 질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기존 연구결과(권명진, 2021; 소권섭, 2019)와 일치한다. 그 외 가족 및 사회관계, 학업유지와 평생교육, 고용유지, 문화여가 등의 요인 역시 경험이나 연구결과(이서연 외, 2022; 김병용, 2022; 손웅비 외, 2019)와 다르지 않다. 이 같이 독립변수로 투입한 사회보장영역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삶의 만족에 사회보장영역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호안전어려움은  $\beta=.017(p<.001)$ 로 정(+)의 값이 나와 보호안전 유지가 어려울수록 삶의 질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석의 신중이 필요하다. 앞서 변수들의 이분형 상관관계분석 결과에서는 삶의 질 만족과 보호안전어려움정도가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회귀분석 식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경우 통계분석에서 두 변수만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곡선형 관계를 지는 경우는 상관계수만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여러 변수가 동시에 투입될 때 그 영향력이 변화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해석해 보면, 보호안전의 질문이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과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이 어떠한 지는 물어보는 항목으로 가족 내 안전이나 외부로부터 안전을 어렵게 유지함으로써 보호되고 있다는 안전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아닌지 추측해 본다. 이서연·조원지(2022:452)는 지역사회 안전 인식이나 감염병 확산 등 외부체계의 변화는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지만, 지역사회와 가족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외부체계로부터 위협이 클수록 더 많은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하고 삶의 만족으로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안전 유지가 어려울수록 다른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호되고 있다는 만족감을 얻은 결과라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5〉 삶의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beta$	t	$\beta$	t	$\beta$	t
상수		2.482		2.489		3.088	
개인 특성	성별(남=0)	-.060	-33.772***	-.055	-31.191***	-.43	-24.856***
	연령	.143	78.954***	.025	14.771***	.024	14.271***
	교육수준	-.054	78.954***	.128	70.281***	.112	61.829***
	경제상태 (상용근로자=0)	-.054	-29.983***	-.047	-26.528***	-.046	-25.978***
가구 특성	월소득			.081	49.144***	.088	54.172***
어려움 정도	정신건강어려움					-.014	-6.353***
	신체건강어려움					-.035	-14.891***
	가족사회관계어려움					-.037	-16.664***
	보호안전어려움					.017	7.127***
	교육어려움					-.040	-19.165***
	고용어려움					-.075	-33.922***
	문화여가어려움					-.075	-37.229***
통계량		$R^2$		Adj. $R^2$		$R^2$ 변화량	
모형1		.037		0.37		.037***	
모형2		.044		.044		.006**	
모형3		.084		.084		.041***	

\*\*\* $P < .001$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만족에 영향요인과 영향력을 밝혀내기 위해 경기도에서 2021년 실시한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삶의 질 만족의 영향요인을 단계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개인특성과 가구특성, 그리고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어려움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 특성에는 가구주성별, 가구주연령, 가구주학력, 가구주경제활동상태를 선정하였으며, 가구특성은 가구의 월소득을 투입하였다. 사회복지영역의 어려움은 총 13개 영역 중 6개 영역인 건강(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가족·사회적 관계, 교육, 고용, 문화·여가, 보호·안전 이상 6개 영

역에서의 어려움정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경기도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3.34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있어서 정신건강어려움정도는 1.6539, 신체건강어려움정도는 2.1098, 가족 및 사회적관계의 어려움 정도는 2.2401, 보호안정유지어려움은 1.9358, 문화여가 어려움은 2.31150, 고용유지의 어려움은 2.0486로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어려움의 평균값이 4.3910으로 어려움 정도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교육의 어려움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의 차이가 1.6539점~4.3910점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결과는 각 영역별 현재 개인이나 가구가 처한 입장 그리고 지역사회차원에서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영역에서의 어려움은 4점이상 나왔다는 결과는 소득계층 등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으로 이에 대해서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사회보장영역의 6개에 영역에서의 어려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 월소득이 삶의 질 만족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주가 남성이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상용근로자일 경우, 가구 월소득이 많을수록 삶의 질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보장영역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건강유지가 어려울수록, 가족 및 사회적 관계유지가 어려울수록, 교육이 어려울수록, 고용유지가 어려울수록, 문화여가활동이 어려울수록 삶의 질 만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호안전영역에서의 어려움정도는 반대방향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구 및 사회보장영역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랜 기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여성가주주, 저학력, 비상용근로자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지속되어야 하고, 가구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구조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낮고, 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 비상용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정책과 보호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복지정책인 돌봄 영역 이외의 건강지원, 가족 및 사회관계유지, 보호안전, 교육, 고용, 문화여가 등 삶의 구성하는 전 영역에서의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년문제, 고독사문제 등은 단순히 돌봄 서비스만을 제공해서는 해결될 수 없고, 일자리부터 건강지원서비스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서비스지원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방향은 복지정책부서에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전 부서에서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 연구에서 사회보장영역에서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본 연구만이 가지는 연구의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만족도를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여 편의(bias)를 발생시킬 위험이(Rose, 2001)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혜진·정해식. (2022).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7(1): 311-334.
- 구교준·이희철·김지원·박차늬. (2020). 주관적 행복과 객관적 삶의 질 차이의 지역분포 분석. 「정부학연구」, 26(1): 161-182.
- 권명진. (2021).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노인의 융합적 삶의 질 영향 요인.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5): 345-354.
- 권현정·조용운·고지영.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노인 및 부양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3(4): 301-326.
- 김미혜·문정화·성기옥. (2014). 성인의 생애주기별 주관적 행복감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Alderfer의 ERG이론 적용. 「한국노년학」, 34(4): 857-875.
- 김병용. (2022). 문화예술 여가활동에 대한 결과기대와 문화예술 여가활동이 사회적 유대감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6(9): 49-63.
- 김이선·손명아. (2018). 경기도의 지역 특성과 지역사회 경험이 거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학」, 19(3): 199-228.
- 김혜연. (2020). 성별 및 연령 집단별 주관적 삶의 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4(2): 47-72.
- 박승규·박진경·조창덕. (2015).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변미리·민보경·박민진. (2017).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과 제도화 방안」.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 석재은·장은진. (2016). 여성독거노인과 남성독거노인의 관계자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 71(2): 321-349.
- 소권섭·황혜정·김은미. (2019). 노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이 주관적 건강수준과 행복감 지수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3): 544-552.
- 손용비·강현철. (2019).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행복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1(2): 220-234.
- 송건섭. (2007). 지역수준별 주민복지와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1(3): 35-52.
- 양재진·이호연·이정주. (2016). 한국 노년층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75-102.
- 이병호·김가연·박민근. (2018). 지역개발과 삶의 질: 신도시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 「국토연구」, 98: 11-22.

- 이서연·조원지. (2022). 가족관계 및 지역사회 만족도가 노년기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 안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3(3): 441-454.
- 우수명. (2018). 『마우스로 잡는 24.0 SPSS』. 양서원.
- 정해식·김성근·김희연·오재환·고승한. (2019).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과 정책혁신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통계청. (2022). 「국민 삶의 질 2021」. 통계청 통계개발원 보고서.
- 한국행정연구원.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 홍성호·임준홍·이경주. (2021).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와 생활 SOC 서비스 격차 분석 : 충청남도를 사례로. 『LHI Journal』, 12(4): 61-79.

- Meyers, D. (1987). Community-Relevant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a Focus on Local Trends, *Urban Affairs Quarterly*, 23.
- 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How's Life? 2020 웰빙의 측정)」. 한국어판.
- Rose, Michael. (2001). *Disparate Measures in the Workplace. Quantifying Overall Job Satisfaction*. 2001 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Conference.  
<https://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22.10.30.)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89004&supid=kku000368246>(검색일: 2022.10.30.)

**김희연:** 이화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공공정책)(지역사회복지의 네트워크 분석 :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2002)를 취득하였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지역복지와 복지역사에 관심이 있으며, 최근에는 복지에 ICT기술을 접목한 융합연구 및 복지혁신에 관심이 있다.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 '노인의 지역환경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2020)', '노인의 재가노인돌봄서비스 이용의사 영향요인 연구: 경기도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2020)', '사회보장 발전 지표 개발 및 적용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2021)' 등이 있다(hykim@ggwf.or.kr)

**유병선:**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노인요양시설에서의 직원·가족 파트너십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노인복지와 주거복지, 주거복지전달체계에 관심이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복지서비스에 관심이 있다.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 Regional Suicide Rate Change Patterns in Korea(SSCI, 2020), 노인생활시설 종사자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연구(2021),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근로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2021), 원폭피해자 1, 2, 3세대들의 삶의 경험과 원폭피해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2022) 등이 있다(bsyoo@ggwf.or.kr)

